

공안문제연구소 증인 질의(연구소장, 유동렬 연구관)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시 공안문제연구소가 출판물, 각종 유인물, 조직(단체) 및 언론 등 사회전반의 각계각층에 대한 이적감정으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안문제연구소가 학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북용공 딱지만을 붙이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밝혀짐으로써 진정으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이 올바르냐에 대한 의구심과 공안문제연구소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최근 감정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와 관련하여 법원이 이적단체 규정을 내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동렬 연구관)

감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공안문제연구소가 조직이나 단체에 대한 감정업무를 할수 없는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한청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주요한 골자는 공안문제연구소의 한 연구관의 감정결과서가 중요한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감정의뢰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의뢰인등을 얘기하지 않을것임)

그럼 개인적으로 감정결과를 내리게 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건으로 개별적으로 감정의뢰가 있으면 감정결과를 하는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행된 감정업무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공안문제연구소장 전병렬)

연구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수많은 감정업무를 진행하여왔는데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결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수배,구속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한청 사건의 경우 2002년9월 전상봉 의장 등 간부4명이 구속된 이후 법원은 지난 7월 공안문제연구소의 개별연구관이 감정한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한 검찰의 기소사실을 인정해 '이적단체'로 규정하였고 그리고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공당인 민주노동당에 대해 원내진출이후까지 4년에 걸쳐 감정을 한것에 대해 경찰청장의 답변은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는등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공안문제연구소는 경찰청장도 책임지지 않는 감정업무를 어떠한 근거와 판단으로 감정업무를 진행하는가?

공안문제연구소에서 감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앞서서와 같이 연구관들이 개별적으로 감정업무를 의뢰받아 처리하는 것을 보고를 받는가?

이러한 감정업무의 결과가 수많은 민주,진보인사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업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지금까지의 감정업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것이며 공안문제연구소는 해체되어야 할것입니다.

공안문제연구소 증인 질의(연구소장, 유동렬 연구관)

경찰을 비롯한 국정원, 기무사가 민주노동당의 공식자료를 비롯하여 소설 언론 등을 무더기로 감정의뢰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올가미로 얽어매려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의뢰된 문건 거의 대부분에 용공 좌익, 찬양동조 등의 딱지를 붙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를 국가안보와 체제수호를 위한 기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감정대상으로 삼은 것이나 감정결과라는 것은 세상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안문제연구소와 같은 비상식적인 기구가 국가기관으로 있다는 사실자체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법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공안기관의 의도와 요구에 따라 감정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으로 국가보안법의 올가미에 걸려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안문제연구소는 민주노동당의 당헌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감정 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결과가 매번 다릅니다. 2000년에는 반정부, 2001년에는 기타, 2003년에는 찬양동조입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했다는 감정은 이처럼 냉전논리에 사로잡힌 수구보수의 기준으로보아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공안문제연구소를 병을 진단하는 의사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안문제연구소를 의사라고 하면 자격도 없는 돌팔이 의사일 뿐이며 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람을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일 뿐입니다.

공안문제연구소에서는 최근 감정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가 이적성이 있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이적단체 규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구소장)

공안문제연구소에서는 경찰 등에서 의뢰하는 문서에 대해서만 감정을 하게 되어있지요?

공안문제연구소의 유동열 연구관의 명의로 한청에 대해 감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장은 한청에 대해 감정의뢰를 받은 사실과 유동열 연구원이 한청에 대해 감정하고 그 감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유동열연구관의 행위는 직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 공안문제연구소는 책임져야하며 적법하지 않는 감정서를 재판에 이용한 수사기구와 관련자도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사전에 모르고 문제가 된 후 알았다고 하면) 소장은 유동열연구관의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유동열연구관)

유동열연구원은 한청에 대한 감정서에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이란 직함을 사용하였지요?

유동열연구관은 한청에 대한 감정의뢰를 누구로부터 어떤 형식의

로 받았으며 감정의뢰서를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제출하였습니까.

유탄열연구원은 이른바 개인적으로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서를 써 주는 일을 자주 합니다.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감정해준 것이 몇건입니까.

또한 한청에 대한 감정서를 공안문제연구소의 컴퓨터 프린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지요?

그리고 지금은 한청에 대한 감정행위가 개인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가보안법이 맹위를 떨치던 시절에는 공안기구의 요구와 입맛에 맞는 엉터리 감정서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고 지금와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쓴 저서, 대학교재도 찬양동조로 감정하는 공안문제연구소에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단 말입니까. 공안문제연구소에 있는 것은 공안기구들이 요구하는 친북용공 딱지를 붙여주는 전문적인 기능뿐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몰랐다, 개인이 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자칭 학자라고 하면 실력이 없더라도 양심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안문제연구소는 시대착오적인 반인권악법 국가보안법이 만들어 낸 수치스러운 기형물에 불과합니다.

수사기관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만들어낸 감정서를 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황당무계한 일이 국가안보라는 이름아래서 자행되어왔습니다.